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7년 1월 5일(목) 09:00 배포시
담당자	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(044-550-4126, kjh@kdi.re.kr) 신기윤 KDI 경제정보센터 멀티미디어팀장 (044-550-4269, libsgy@kdi.re.kr)
배포일시	2017년 1월 5일(목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KDI-EBS,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'4차 산업혁명, 위기인가 기회인가' 공동제작

- KDI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미래사회의 방향성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EBS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'4차 산업혁명, 위기인가 기회인가'를 제작, 오는 7일 방송함.
- EBS와 공동제작한 다큐멘터리 '4차 산업혁명, 위기인가 기회인가'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을 제안한 헤닝 카커만 前 SAP 회장,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회장, 존 자이스먼 UC 버클리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 인터뷰와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뤄나가는 독일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현지 취재로 구성
 - '인간을 위한 기술 혁신,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에서 해법을 보다'
 - 로봇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감축이 예상되는 제조업 현장에서 직원 재교육을 통해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 소개

- “기업의 이면에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”
(메르켈 독일 총리/2016년 하노버 산업박람회)

○ ‘미국의 메이커 운동과 STEM 교육, 창의적 인재를 창출해내는 혁신 교육이 답이다’

- 창의적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에 발맞춰 초등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을 융합한 STE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nd mathematics) 등 교육 혁신 내용이 담김.

- “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듭니다.”
(오바마 미국 대통령/2014년 백악관 메이커 페어)

□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사회·경제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,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미칠 파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”라고 밝힘.

※ 신년특집 다큐멘터리, ‘4차 산업혁명, 위기인가 기회인가’

○ 본방송. 1월 7일(토) EBS1 오후 5시 35분

○ 재방송. 1월 8일(일) EBS1 오전 10시 50분